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99-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2022년 여름, 어떻게 지내셨나요?
- 여름날씨에 대한 인식

2022. 9. 28.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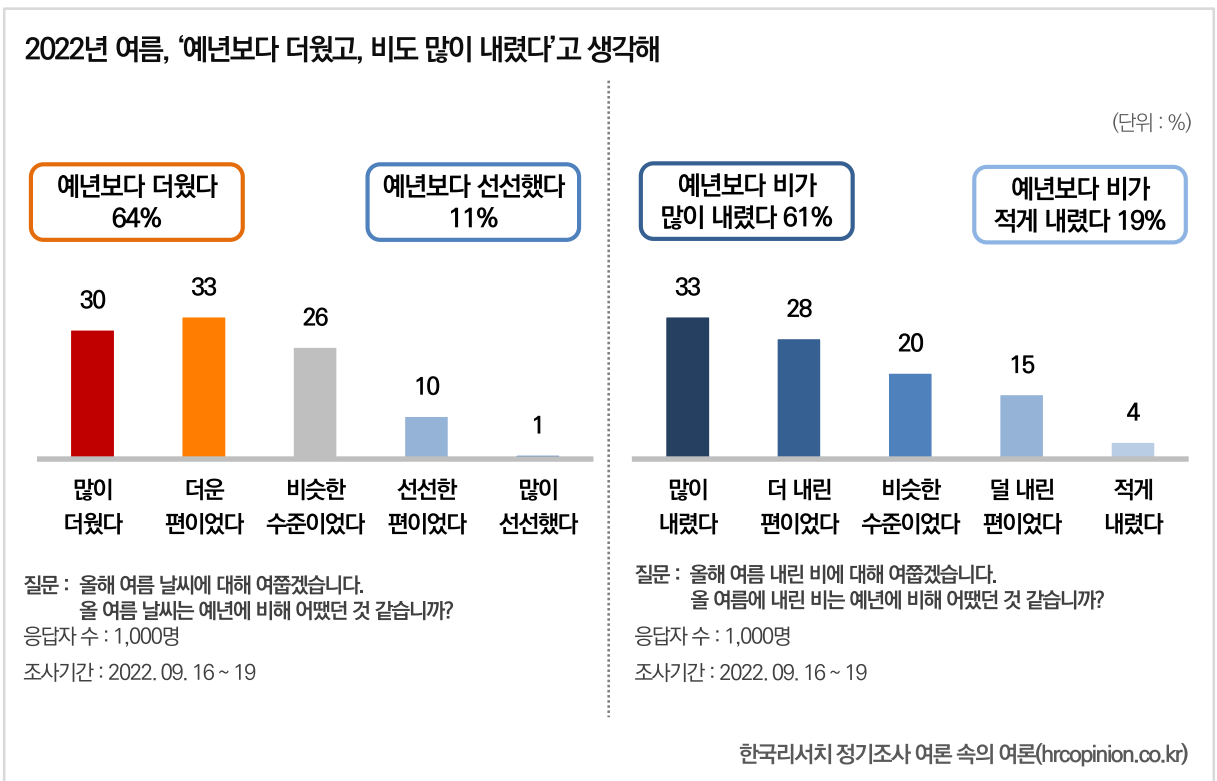


2022년 여름 날씨에 대한 인식

2022년 여름, '예년보다 더웠고, 비도 많이 내렸다'고 생각해

지난 9월 7일, 기상청은 [2022년 여름철\(6~8월\)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4.5도로 평년(23.7도)보다 0.8도 높아, 역대 7위를 기록했다. 특히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는 평년 대비 3도 이상 높아, 역대 가장 뜨거웠다(6월 하순/7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 25.7도 / 27.1도(평년대비 +3.3도 / +3.7도)). 또한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672.8mm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강수량 차이(458.0mm)가 1995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컸다.

실제 기후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이번 여름 날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2022년 9월 16일 ~ 19일 진행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번 여름을 '예년보다 더운'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많이 더웠다 30%, 더운 편이었다 33%). 강수량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1%가 이번 여름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렸다'고 답했다(많이 내렸다 33%, 더 내린 편이었다 28%). 예년보다 더운 여름으로 기억하는 건 기상청의 분석과 일치하지만, 강수량에 대해서는 기상청의 분석과는 달리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 여름 강수량에 대한 인식,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간 편차 커 실제 여름 강수 특성과 일치

지난 여름 기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인식차이가 없었다. 중부지방 거주자의 63%, 남부지방 거주자의 64%가 이번 여름이 예년보다 더웠다고 생각했다.

강수량에 대해서는 지역별 인식차이가 컸는데, 중부지방 거주자 중에서는 75%가 이번 여름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고 답했다. 이는 8월 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힌 집중호우에 대한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남부지방 거주자 중에서는 35%만이 이번 여름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고 답했다. 오히려, 예년보다 비가 적게 내렸다는 응답이 38%로 더 높았다. 실제로, 기상청의 기후 분석에 따르면 중부지방의 이번 여름 강수량은 평년(759.6 mm)보다 많은 941.3 mm를 기록했다. 반면 남부지방의 올해 강수량은 483.3mm로 평년(704.0mm)보다 적었고, 가뭄일수 또한 85일로 중부지방(32일)보다 53일이나 더 많았다.

이번 여름 강수량에 대한 인식,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간 편차 커 실제 여름 강수 특성과 일치

(단위 : %)

	사례수 (명)	기온			강수량		
		예년보다 더웠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선선했다	예년보다 많이 내렸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적게 내렸다
전체	(1,000)	64	26	11	61	20	19
성별							
남자	(496)	61	28	10	60	22	19
여자	(504)	66	24	11	62	19	19
연령							
18-29세	(170)	59	28	13	65	17	18
30대	(151)	65	23	13	56	22	21
40대	(185)	68	24	8	67	15	18
50대	(195)	64	27	9	59	25	16
60세 이상	(299)	62	27	10	58	21	21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3)	63	26	11	75	16	8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7)	64	26	10	35	27	38

질문 : (기온)올해 여름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여름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까?
(강수량)올해 여름 내린 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여름에 내린 비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 09. 16 ~ 1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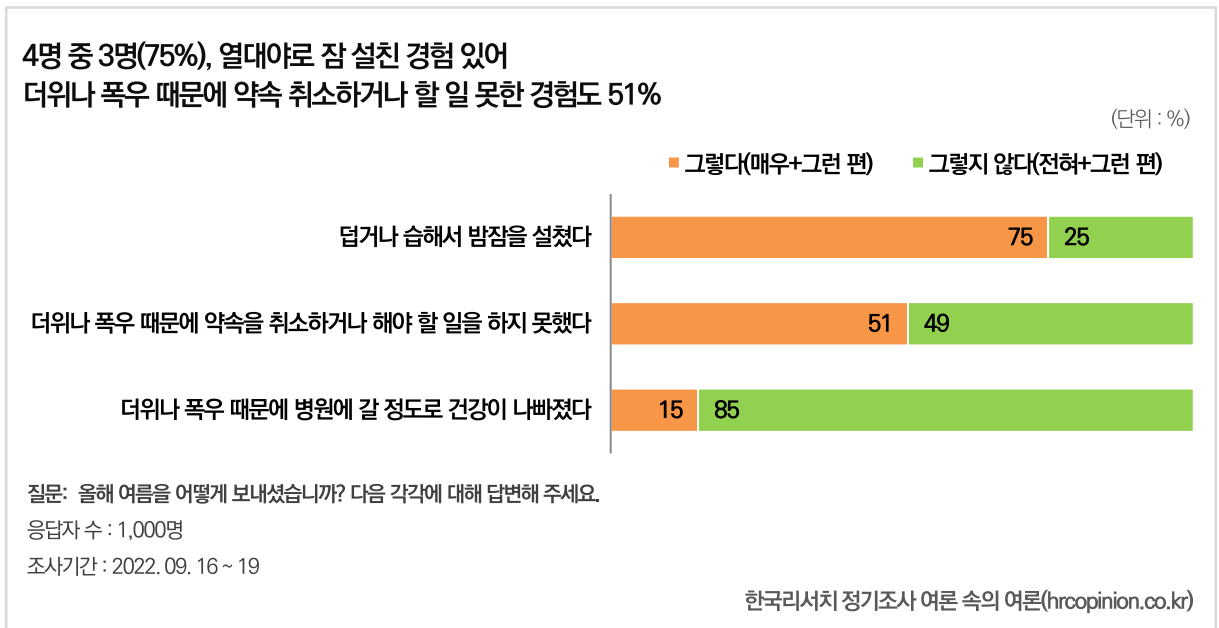
2 2022년 여름나기

4명 중 3명(75%), 열대야로 잠 설친 경험 있어 더위나 폭우 때문에 약속 취소하거나 할 일 못한 경험도 51%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진 이번 여름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전체 응답자의 4명 중 3명(75%)이 이번 여름 ‘덥거나 습해서 밤잠을 설쳤다’고 답했다. 예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다수가 열대야 현상을 경험한 건데, 기상청은 올해 여름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평년에 비해 자주 불어 열대야일수는 12.9일(평년대비 +6.5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더위나 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51%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여름 날씨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험은 여자(56%) 및 18-29세(65%) 응답자에게서 높았다. 또한 남부지방 거주자(42%)보다는 중부지방 거주자(56%)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 또한 8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 응답자의 15%는 ‘더위나 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고령층일수록 무더위에 취약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주관적 계층인식 ‘최하’, ‘월세·사글세·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여름나기가 좀 더 힘겨워

가혹한 날씨는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이에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는 적응력은 경제적 상황이나 주거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점이 일부 확인됐는데,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본인이 계층을 ‘최하층’ 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자가나 전세가 아닌 ‘월세·사글세·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이번 여름을 좀 더 힘겹게 넘겼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덜거나 쉬해서 밤잠을 설쳤다’는 응답은 75%였는데 소득 300만원 미만(79%), 본인의 계층이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82%), ‘월세·사글세·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84%)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더위나 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15%였으나, 역시 소득 300만원 미만(20%), 본인의 계층이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20%), ‘월세·사글세·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22%)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주관적 계층인식 ‘최하’,
‘월세·사글세·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여름나기가 좀 더 힘겨워**

(단위 : %)

	사례수 (명)	덜거나 쉬해서 밤잠을 설쳤다		더위나 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더위나 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체	(1,000)	21	75	13	51	3	15
성별							
남자	(496)	19	74	10	46	3	17
여자	(504)	22	76	15	56	4	13
연령							
18~29세	(170)	27	74	18	65	7	19
30대	(151)	21	77	17	52	4	14
40대	(185)	23	79	13	49	3	16
50대	(195)	19	78	10	52	4	17
60세 이상	(299)	17	70	9	44	0	12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3)	22	77	14	56	3	15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7)	18	71	10	42	2	1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43)	18	79	12	52	2	20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11)	21	73	12	50	3	13
600만원 이상	(246)	24	74	15	51	4	12
주관적 계층인식							
상층	(43)	14	63	14	55	4	14
중간층	(267)	22	72	11	51	3	14
중하층	(481)	17	76	11	49	2	14
최하층	(185)	29	82	19	56	5	20
모름	(24)	26	54	8	29	4	4
거주유형							
자가	(651)	20	73	11	49	2	13
전세	(150)	24	74	16	54	5	14
월세, 사글세, 무상	(189)	22	84	14	54	4	22

질문 : 올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 09. 16 ~ 19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8월 기준 약 78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253명 , 조사참여 1,41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8%, 참여대비 70.5%)
조사일시	• 2022년 9월 16일 ~ 9월 19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